

“독자신당 창당은 또 다른 분열...통합만이 야권 살 길”

호남 신당파 인사들 안철수 독자창당 추진에 우려 목소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신당 추진으로 입지가 좁아진 기존 신당 추진 세력들이 일제히 안 의원과 다른 통합 요구 목소리를 내면서 안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의 독자신당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나중 흡수통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목소리로 해석됐다.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2일 전남도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과 연대 가능성을 차단한 데 대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금이야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이 믿고 새정치연합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연대가 불가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가면 되겠느냐”며 야권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대선에서 이기는 야권은 식물정권이 된다. 총선과 대선 모두 승리해야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지역주의가 완화돼 1대1 구도가 야권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야권이 수도권에서는 ‘야권 통합·연대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이어 “안 의원 탈당 후 안 의원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안 의원이 당 대표 시절 주도한 일부 인재영입과 공천과정에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한 뒤 “안 의원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는지가 앞으로 신당 창당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날 통합신당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발원에서 “이미 여러 갈래로 추진 중인 신당을 하나의 단일한 신당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른바 ‘제3지대 원샷 통합’ 방식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 의원마저 독자신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심은 또 다른 패턴과 분열이 나타나

천정배 “연대 불가 단정하면 안돼”

박주선 ‘제3지대 원샷 통합’ 제안

박준영 “하나의 신당으로 가야”

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신당 추진이) 하나로 통합된 신당 창당을 염원하는 야권 핵심기반인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제기한 신당의 목표와 가치, 비전은 다른 신당추진 세력과 다르지 않다”며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단일한 통합신당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안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의원 7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의원총회를 제안, 동일한 자격과 권한 및 책임을 갖고 단일한 통합신당의 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박준영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이날 광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서는 하나의 신당으로 가야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안철수 의원이 탈당 직후 함께 모여 하나의 신당을 추진하는 논의를 제안했지만 독자 창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를 하겠다”며 미리 준비된 일정에 따라 창당 작업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또 기존 신당 추진 세력이 뿔뿔히 나뉘었다면 ‘안철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딘 통합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모든 대권 후보, 신당 창당 세력들은 저마다 혁신, 새정치, 통합을 외치며 마지막 남은 당의 동력인 호남, 특히 광주를 속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며 “오직 문 대표의 결단만이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독자 세력화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22일 대전시 동구청에서 학부모·지자체들과 만나 사회·복지·교육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원들 탈당, 안신당에 毒될 수도

“혁신 퇴색” 민심 역풍 부를수도

김동철 의원(광산 갑)에 이어, 임내현 의원(북구 을)이 오늘 탈당할 예정인 가운데 장병완(남구·권은) 의원(광산 을)도 올해 연말 탈당과 함께 안철수 신당행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에 박해자 의원(서구 갑)도 탈당을 놓고 막판 고민이 깊어가고 있어 안철수 신당 바람이 야권의 심장이자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아성인 광주를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은 호남을 넘어 수도권까지 안철수 신당 바람이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일부 광주 국회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신당의 방향 등을 설명하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탈당 러시는 안철수 신당에 밀려마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의원이 ‘혁신’과 ‘새정치’를 모토로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데 광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것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 이반은 진노 진영의 패권주의도 있지만 광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무기력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의 무소속 당선도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광주 민심의 결집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변화의 대상이자 혁신의 상징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을 바라보는 광주 민심은 그리 좋지 않다. 정치적 신념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한 ‘탈출’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광주 국회의원들에게 탈당을 매개로 내년 총선 공천을 보장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국회의원들의 탈당 러시는 안철수 신당에는 단기적으로는 바람을 일으키는 순기능을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의 퇴색으로 민심의 역풍을 부르는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2016년 01월 08일(금) ~ 02월 22일(월)

패턴 : (2박3일) / (3박4일) / (4박5일)

1 January **2 Februar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7	28	29	30	31	1	2	31	1	2	3	4	5	6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24	25	26	27	28	29	30	28	29	1	2	3	4	5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겨울방학 가족, 연인과 함께
일본은전 여행을 즐겨보세요!

북큐슈/실속 선적순 24명 4일 성인/749,000원-펜션 어린이/719,000원
성인/799,000원-호텔 어린이/769,000원

북큐슈/썬겨 4일 성인/899,000 어린이/849,000원

아마구치/썬겨 4일 성인/929,000 어린이/879,000원

남큐슈/썬겨 4일 성인/1,049,000 어린이/999,000원

안철수 ‘창당 50일 작전’ 바쁘다 바빠

마포에 사무실 실무절차 본격화...내달 2일 발기인대회 열 듯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 목표 시점으로 밝힌 2월 설 연휴전까지 남은 시간은 50일도 채 안돼 독자신당 창당을 위한 ‘초스피드’ 행보에 들어갔다.

정당법상 신당을 창당하려면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창당준비위(창준위)를 꾸려야 하고, 최소 5곳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친 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안 의원 측은 마포 일신빌딩 16층에 동지를 틀고, 150평 가량을 창당준비 사무실로 임대했다. 그리고 22일부터 실무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창당 실무절차를 본격화했다.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을 단장으로 한 창당실무준비단은 이날 중 기획·조직·공보·메시지 등 역할 분담을 끝냈다.

통합신당 창당시 창준위 전 단계로 창당추진위를 구성하지만 일정의 촉박함 탓에 창당실무준비단을 사실상 창당추진위처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일정이 너무 바빠 창당 일정 수립, 시·도당 창당 준비, 발기인 모집, 신진인사 영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마음은 급한데 겨울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당 명칭은 창준위 구성 이후부터 사용 가능해 ‘안철수 신당’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정당명을 붙일 수 있게 하려면 발기인대회 개최와 창준위 출범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내달 2일이나 9일 발기인대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 사이에 정당명도 정해야 하는데, 대국민공모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발기인 모집을 비롯한 세 확산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일단 안 의원 측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로 나선 ‘진심캠프’, 지난해 3월까지 신당 창당 추진을 함께했던 새정치추진위 인사들을 규합 1순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안 의원과 결합한 김동철·문병호·유성열·황주홍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는 실무준비단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외곽에서 창당에 필요한 조연과 조직 등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무안 ↔ 씨엠림 전세기 ◀

- 수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4일 성인 /1,10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4일 36홀 /1,450,000 ~ 1,520,000원
54홀 /1,550,000 ~ 1,620,000원

- 토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5일 성인 /1,11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54홀+양코르왓관광 5일 /1,550,000 ~ 1,620,000원

*당서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계동다 2003-1호) 여행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항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여행비용1억원,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제19조,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증금 5억 원까지 특별세(무소속) 및 일정표준 반드시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경비(음식,다.기생/가이드/보통/선박관광,과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성령에 따라 다름